




'2017 전국생활문화축제'

소셜인플루언서 에세이집

 생활문화진흥원

좋아서 하는 것의 가벼움, 거기에서 오는 온전한 즐거움

- 정가람(서울시 강동구 문화예술협동 조합 아이야 대표)

결혼 전 나는 뮤지컬과 희곡 대본을 쓰는 일을 했다. 무명에 가까운 작가이지만 예술 언저리에서 글을 써서 밥 먹고 살았었다. 그러다 결혼, 출산, 육아로 진입하면서 작가보다 세 아이의 엄마로 더 많은 일을 해야 했다. 육아는 그 어떤 일과 견주어도 밀리지 않는 중요한 일이지만, 육아 때문에 나를 만들어 가던 일을 포기할 순 없었다. 그런 고민 속에 마을의 작은 도서관을 만났고, 마을공동체, 사회적 경제로 이어지는 새로운 흐름을 알게 되었다.

작은 도서관을 터전 삼아 마을극단을 만들어 나와 아이들을 위한 작은 공연을 만들어 마을과 나누며 몇 년을 보냈다. 그렇게 도서관과 마을을 드나들며 많은 이웃을 만났다. 바느질, 수채화, 드로잉, 그림책, 꽃차, 가족합창단, 난타 등 다양한 동아리들이 마을 곳곳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냥 얼굴만 알던 이웃의 동아리 활동 모습을 보자 여고 시절 CA시간으로 돌아간 기분이 들었다.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일상의 한 조각은 지켜만 봐도 같이 행복했다.

그냥 좋아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여고 시절 나는 연극동아리를 3년 동안 했고, 이는 대학 전공으로 이어져 마흔이 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직업이자 취미인 셈이다. 그러나 아이들을 키우며 마을의 동아리들을 보니 잊고 있던 어릴 적 꿈들이 생각났다. 밥벌이의 긴장감을 내려놓고 '그냥 좋아서' 하는 것들이 하고 싶어졌다. 막내가 어린이집에 가는 다섯 살만 되면 가벼워진 두 손으로 그림을 그려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어디 수채화뿐이라, 우쿨렐레, 자수, 사진, 피아노, 판소리 등등 하고 싶은 건 많고도 많았다.

마을 곳곳의 취향 공동체, 생활문화 동아리

올봄, 드디어 막내가 어린이집에 갔다. 설레는 마음으로 무엇을 먼저 배울까 두리번거렸다. 마을공동체 속 동아리 뿐 만 아니라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평생학습관에 다양한 강좌들이 개설되어 있었다. 강습에 그치지 않고 일상을 함께 나누는 관심공동체에서 취향 공동체로 성장

한 건강한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물리적인 마을을 넘어 또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 가는 움직임이 보였다.

많은 꿈 중에 가장 하고 싶었던 '여행수채화'를 손가락에 꼽았다. 마을에서 작업실을 운영하는 미술작가와 뜻을 모아 월요일 오전 여행수채화반을 열었다. 처음엔 아이들 그림물감을 들고 만났지만, 자신만의 화구를 챙겨 들고 오래 기억하고 싶은 풍경을 그리는 오전 11시의 로망을 이뤄가는 중이다. 다들 초등학교 이후 이렇게 집중해 그림을 그렸던 적이 없었다며, 좋아하는 마음 하나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두어 시간을 아껴 가꿔가고 있다.

처음 만난 사람들이었지만, 한동네에 살고, 좋아하는 것이 같다는 것, 그 것 만으로도 끈끈한 울타리가 생겨났다. 이것이 말로만 듣던 취미공동체구나 싶다. 요 몇 년 사이 새로운 바람으로 불고 있는 '생활문화예술'이 이런 거구나 체감하는 귀한 일상의 경험이다.

공적 영역으로서의 생활문화

셰익스피어의 나라 영국은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비공식 예술(Informal Arts), 미국은 '참여예술(Participatory Arts), 독일은 '사회문화(Soziokultur)라는 개념으로 정리되어 있다. 한국의 기존 개념으로 '시민문화(예술)', '아마추어 예술', '커뮤니티아트', '생활문화(예술)'로 혼재되어 통용되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지역주민 스스로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만드는 다양한 문화적 활동"을 '생활문화'라는 개념으로 정리했다.

점점 커져만 가는 현대 사회의 불확실성과 개인의 욕망을 조율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관심 공동체인 생활문화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단순한 개인의 취미생활을 넘어 예술이 가진 사회적 기능처럼 생활문화도 공적 영역으로 민관에서 함께 기능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시의 외로운 육아에 지쳐 산후우울증을 겪던 내가 마을극단 활동을 하며 일상과 육아의 즐거움을 찾았고, 아이 때문에 접었던 일을 아이와 함께 키워나가게 되었다. 지역의 크고 작은 동아리들 대부분이 자신의 필요와 열망에 따라 생활문화를 매개로 관계공동체를 재구성해 나가고 있다.

값비싼 사교육으로 접하는 예체능보다 동네에서 만나는 피아노 이모, 사진 이모, 미술 이모, 공연 삼촌을 친구로 만나게 해주고 싶었던 막연한 꿈이 이렇게 이뤄지는 중이다. 나의 여행수채화처럼 아이들에게도 전문적인 예술을 익히기보다 자신이 자라는 마을의 문화를 누리며, 자신의 삶으로 다시 마을의 문화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싶다.

2017 생활문화축제 '두근두근 내 안의 예술'

사교육 대신 아이의 유년과 미래를 풍성하게 해줄 생활문화가 새 정부의 지역문화정책국 신설로도 확장되어 반갑던 '생활문화진흥원'을 알게 되었다. 벌써 4회째 '전국생활문화축제'가 열리고 있고, 서울문화재단에도 생활문화지원단이 출범했다. 전문예술가들의 영역과는 다른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좋은 기회를 통해 올해 축제에 소셜인플루언서로 활동하게 되어 더욱 자세히 들여다보게 된 전국생활문화축제였다.

'삶을 예술로, 마을을 문화로' 가꾸어 가는 전국의 생활문화 동아리들이 모여 4년째 이어오고 있는 '전국생활문화축제'가 9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진행되었다. 본 개막(9일)에 앞서 오는 8일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전야제를 개최했다. 2017 생활문화축제는 보여주기식 행사, 전문 기획자 중심의 프로그램 중심 행사라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겪고 "시민들이 스스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 축제를 이끌어가"며 "시민들이 함께 즐기고 공감할 수 있는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고 결과 또한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자리였다.

시민들이 스스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는 축제

8일 금요일 전야제는 초청공연 및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콜라보 공연이 진행되었다. 초청공연 '까치와 도깨비'는 배우 정인기와 화가 이상선이 본업인 예술 장르가 아닌 기타를 연주하는 무대로 전문예술인의 생활문화 활동으로 '좋아서 하는 예술'의 의미가 더욱 빛났다. 또 다른 초청공연인 11명의 연극인들이 모인 '연극인밴드'도 이와 같았다. 싱어송라이터 가수 조동희와 통기타 생활문화동호회 연합의 합동 공연은 앞으로 문화라는 큰 범위 안에서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이 어떻게 만나 어떤 문화생태계를 그려볼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무대였다.

권역별 생활문화동호회 콜라보 공연으로는 부평의 '기쁜탄때 통기타'와 '열우물 하모니카'가 연합하여 공연을 펼친다. 40~50대 주부들로 이루어진 '평창여성초아밴드'와 5인조로 이루어진 직장인 밴드 '쥬크박스'의 무대도 진행된다. 이 밖에도 기획 전시 및 체험, 생활문화 영상제, 청년 버스킹, 생활문화 연극제, 생활문화 방담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중심으로 8일부터 10일까지 펼쳐졌다.

야외 행사라 날씨가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늦여름 날씨의 9일, 전 날의 더위를 식혀주려는 듯 살짝 흐린 10일. 양일 모두 전국에서 온 생활문화 동아리 벗들을 맞이하기 적절했다. 젊은 이들의 문화가 우세한 대학로에 평소의 연령대보다 조금은 높은 세대들이 상기된 표정으로 무대에 서고, 객석에서 서로의 공연을 보며 응원하는 모습은 좋아서 하는 것의 가벼운 긴장, 거기에서 오는 온전한 즐거움과 설렘을 볼 수 있었다.

다양한 콘텐츠로 진행된 공연 무대와 달리 마로니에 공원의 생활공예팀들의 체험 부스는 살짝 아쉬운 감도 있었다. 여타의 축제 체험보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어린아이들에겐 어려운 수준의 체험이 많았다. 한정된 시공간에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의 참여도가 제한될 수밖에 없

었다. 이 점은 모든 축제의 고민거리 일 것이다. 부스 만큼 쉬는 공간을 공원 곳곳에 설치했던 노력과 더불어 체험을 조금 더 열린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한 고민도 함께 하면 좋겠다.

정식 생활문화 동아리로 브로셔에는 없었지만 공원 한 켠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뜨거운 반응을 받았던 건담과 레고 동아리는 생활문화동아리의 영역 확장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다. 인생 이모작 영역에서 실버세대들이 준비한 페이스북 ‘보이는 라디오’와 1인 미디어들의 실시간 축제 중계도 흥미로웠다.

다음 축제엔 3,40대의 생활문화가 빛날 수 있길

생활문화축제를 즐기며, 생활문화가 과연 우리에게 무엇으로 어떻게 나아갈까 고민하며 들여다보았던 몇 주. 그 어떤 전문가들의 예술보다 일상 속에서 시민들 스스로 즐기며 만들어 가는 생활문화가 우리의 ‘삶을 예술로, 마을을 문화로’ 더 밀착해 가꾸어 가고 있음을 보았다.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었다. 3,40대의 부재, 특히 3,40대 남성들의 부재이다. 주위의 생활문화 동아리도 그러하고, 이번 축제도 그러했다.

은퇴 후 노후를 즐기는 방법으로, 육아에서 해방된 4,50대들의 취미로 생활문화의 많은 영역이 구축되어 있다. 혹은 20대 청년들의 동호회 성격이 강한 취향 동아리의 한 부분. 지금의 생활문화 관계망 속에 육아와 직장일로 바쁜 30대를 찾기란 쉽지 않다. 나 역시 막내가 어린 이집에 가고 나서야 겨우 수채화를 시작할 수 있지 않았던가.

‘저녁이 있는 삶’, ‘온전한 휴일이 있는 삶’이 사회 시스템으로 더욱 구축이 된다면 자신의 여가를 다양한 생활문화로 가꾸어나가는 30대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세대가 고루 즐기는 생활문화. 그로 인해 전 세대가 건강한 행복을 주고받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 마을은 몇몇 세대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문화 또한 그러할 것이다.

점점 더 깊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 생활문화축제

- 원동업(서울 성동구 인생대학교 배우는 중)

문화의 한쪽 끝에는 생활이 있고, 다른 한쪽 끝에는 예술이 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문화는 우리들의 생활양식 전체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것이 높이 고양된 곳에 예술이 있다고 믿어 왔습니다. 2017 전국생활문화축제의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마치고 보니, 생활과 문화와 예술은 길다란 막대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건 하나의 양상불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술과 문화가 서로 맞물리며 삶을 높이 고양시키는 것이었습니다.

2017 생활문화축제 인플루언서 활동의 핵심내용은 2017년 9월 8일부터 10일까지 대학로에서 열린 축제를 관람하고 그 감상을 내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급작스레 개인적인 일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9월 6일부터 12일까지 어린이들과 제주여행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축제 전에, 그것을 준비하는 분들과 만나고 그 이야기를 실어 나르는 일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남동훈 예술감독과 유상진 생활문화진흥원팀장, 나기주 원장님, 최영갑 충북문화재단 축제추진단을 만나 인터뷰를 하게 된 것은 그래서입니다.

남동훈 연극연출가가 전국생활문화축제 예술감독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적절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아는 그는 벌써 10여년 째 성미산의 마을에 살면서 그들과 부대끼며 시민극단 ‘무말랭이’ 상임연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청소년들과도, 지역의 어르신들이나 사람들과도 지속적인 만남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축제를 여는 행사로 길놀이를 하려고 합니다. 이미 섭외가 모두 끝났고, 그분들이 스스로 동선과 기획을 짜고 있어요. 축제란 당사자들이 모두 자신의 것들을 준비해서 함께 모이는 것이에요. 만나서 어디서 왔소? 무얼 하오? 서로 묻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다 다시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그 마을로 가서 ‘거기 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합디다.’하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서로서로를 알아나가는 일이 축제고, 그래서 여기 오는 사람들이 함께 즐거웠으면 좋겠어요.”

언젠가 남동훈 예술감독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연출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그 답은 이랬습니다. “관객들이 그 연극 안에 들어가고 싶다고 느끼게 하고 싶다.” 사람을 가장 우선에 두는 연출가, 함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는 감독. 이런 사람이 진두지휘하는 축제는 더 두고 볼 것 없이 즐겁고 따뜻한 것이겠다 싶었습니다.

나기주 원장님과 유상진 팀장을 본 것은 두 세 번쯤 밖에는 안 됩니다. 한번은 인플루언서 ‘임명식’때 보았고, 다음엔 인터뷰를 같이 했습니다. ‘공공기관’이 갖는 특유의 위계가 없지 않았지만, 생활문화진흥원은 편안했습니다. 원장과 팀장이시지만, 적절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었

다고나 할까요? 나기주 원장님이 정책의 큰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었다면, 유상진 팀장은 그것을 숫자와 현장의 감각을 통해 보완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나기주 원장님은 예향 전주에서 나셨더군요. 오래 관료 생활, 공직에 있었지만 두루 문화정책과 관련된 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문화정책 전문가였습니다. 국어원, 영상원. 그분 스스로 자신도 예술 안에 있고자 한 태도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그의 이야기는 조금 더 느려졌지만 확실한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민간이 스스로 잘하는 것에는 손 대지 않고, 지원을 통해 더욱 나아질 것에만 지원한다. 이 예산들은 국민들의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유상진 팀장은 성남서 왔습니다. 성남은 척박한 문화 환경에서, 나름대로 자신들의 생활문화를 모범적으로 일궈온 곳입니다. 그곳에서 오래 현장의 문화예술과 정책을 연결하는 일을 해왔죠. 성북에서도 역할을 한 적이 있고요. 유팀장은 이곳에서 제대로 자기 자리를 잡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일이나 그렇겠지만, ‘생활문화’ 그리고 ‘생활예술’의 분야만큼 ‘현장’이 중요한 곳이 없습니다. 그는 그 현장을 이제 숫자를 통해 이해를 도왔습니다. 전국의 생활문화를 지원할 임무를 맡은 그에게서 여전히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최영갑 님은 이번엔 축제추진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가인데, 4회를 맞는 생활문화축제에 개근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축제를 마치고는 빼곡이 ‘이번 축제의 개선점’에 대하여 적어 냈다고 했습니다. 생활문화인들을 배제하거나 소홀히 했던 행정에 대해서, 나름 생각하는 축제의 방향에 대해서 적어냈던 것입니다. 그가 지적했던 부분을 올해 축제에서는 80% 이상을 반영했다고 합니다. 들을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걸 ‘들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사회의 개선은 더 확실해지겠지요.

최영갑 님을 통하여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활문화에 대해 조금더 깊게 들어가 보았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그림마실’이라는 어르신들의 회화동아리를 만들어 3년간 총무도 해보았습니다. 성동구 내에 있는 이런저런 생활문화 동아리도 제법 알지요. 그네들이 어떤 자리에 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그의 이야기를 통해 보다 선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은 다른 곳의 모든 생활문화 영역에 도움이 되겠지요. 문화란 미메시스 복제처럼 혹은 유전자 DNA mim처럼, 서로서로 복제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처음엔 강습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이웃들과 접점을 늘려가면서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해 가야 합니다. 그건 소외된 이웃들에게 나의 생활을 나누어 주는 봉사의 형태이기도 하고, 그 자체로 완성된 삶의 기쁨이기도 할 것이었습니다. 생활문화축제 같은 곳에 나서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더 잘 알게 됩니다. 외부의 다양한 활동에 자극도 받고요. 그렇게 가다보면 그 영역 안에서 더 많은 이들이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해 줍니다. 독자적인 길로 더 많은 봉사와 만남이 가능한 성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웃의 사람들이 생활문화를 통하여 어떻게 삶의 질을 높여갈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과 영감을 받았던 인플루언서의 경험이었습니다. 2018년에 생활문화축제가 다시 열리겠지요. 그때는 꼭 가족과 손잡고, 이웃의 생활문화동호회 사람들과 함께 그 자리에 방문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두근두근 내 안의 예술’을 몸소 실천해 가겠습니다.

전국생활문화축제를 보고

- 김향자(서울시 은평구 주민연극동아리 맛장구 대표)

전국생활문화축제에 낯선 단어인 ‘소셜인플루언스’라는 역할을 받고는 아날로그 활동이 더 익숙한 나에게는 부담이 되었고 멋모르고 응해 버린 것이 살짝 후회가 되었다.

하지만 그 후회는 축제를 보기 위해 대학로 나들이를 가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대학로 대로변 양쪽으로 걸려 있는 ‘두근두근 내 안에 예술’이라는 현수막을 보는 순간 마치 타악기 연주를 들을 때 리듬에 맞추어 심장이 쿵쿵거리듯이 설렘으로 쿵쿵거렸고, 어쩌면 소셜인플루언스가 아니었다면 멋진 축제를 그냥 지나칠 뻔했기 때문이다.

생활문화진흥원과 소셜인플루언스와 참여 동아리들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으로 마로니에 공원은 많은 관객과,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도 눈에 많이 띄었다.

축제 주 무대의 지붕과 같은 느낌으로 제작했다는 체험부스는 다양한 프로그램 내용만큼 멋있어서, 함께 간 동아리 회원들과 연극 소품으로 욕심이 생겨 만지작거리며 탐을 내다 돌아오게 했다.

연극 공연으로 광주에서 온 젊은 극단‘SOUL’의 뮤지컬 공연을 보았다. 공연장인 드림시어터는 우리 연극동아리도 공연을 두 번이나 했던 익숙한 장소로 무대 위의 배우가 아닌 관객의 입장으로 그것도 아마추어 동아리의 공연을 보게 되니 새로운 느낌이 들었고, 긴장하며 그 장소에 서 있었던 기억이 다시 떠올라 우리 동아리 공연을 보는 듯이 무대의 긴장이 전달되었다.

공연은 ‘빨래’ ‘맘마미아’ ‘렌트’ 등 잘 알려진 3편의 작품 중 하이라이트 부분을 조금씩 보여주는 옴니버스 형식이였다. 젊은 극단으로 그 패기만큼이나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노래, 춤 등 자신들의 역량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을 한 모습과 열정이 느껴져 아름다웠다.

하지만 짧은 시간에 여러 작품은 조금 산만하다는 느낌이 있었고, 큰 음악 소리에 비해 배우의 작은 목소리는 대사 전달이 아쉽기도 했다.

분장실의 조명을 켜 둔 채로 배우들이 등, 퇴장하여 공연 집중에 방해가 된 것은 경험 부족과 공연장 리허설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미처 확인하지 못한 아마추어 동아리만이 할 수 있는 실수였을 것이다.

공연에서 가장 아쉬운 점은 진행 측으로 보이는 분이 공연 중 종횡무진 하며 놀러 대는 사진 찍는 셔터 소리에 관객은 물론 배우들도 공연 집중에 방해가 된 점이다. 공연 시작 전에 배우는 관객들에게 사진 찍지 말라는 양해를 구했는데 어이없게도 주최 측의 사진 촬영은 공연 내내 신경 쓰이게 하여 리허설에 미리 촬영을 했으면 좋았을텐데 생각을 하게 했다.

폐막식 공연을 한 오버란트 요들, 비가비 국악예술, 연제춤사랑 동아리는 구성원들의 평균 연령이 높아 보였지만 즐겁게 공연하는 모습에서 프로의 세련됨은 없지만 스스로 행복해하는 모습이 느껴져서 더 훌륭한 공연이었다. 특히 연제춤사랑의 부채춤 공연 중에는 뒷 무용수의 부채에 화관이 걸려 흘러내렸어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공연하는 모습의 침착함과 여유로움에 더 박수를 보내게 하였다.

이번 축제를 통해 각 지역의 문화 동아리들에게 서울에서의 축제가, 특히 연극동아리에게는 대학로라는 상징적인 공간에서 공연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자존감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그건 몇 년간 주민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공연장 대관에 대한 어려움과, 대학로 공연이나 규모가 있는 공연장 공연이 구성원들의 사기를 높인데 큰 역할을 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축제를 보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현대인들의 욕구가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관객이 아닌 참여자로 자신들만의 표현을 하는 문화 예술동아리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전국생활문화축제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지역과 지역의 문화재단 간의 교류 축제의 기회도 주어져 문화 동아리 활동에 다양한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제공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지나면 나무에 나이트가 늘어나듯, 얼굴에 주름이 생겨나듯 문화 동아리 활동이 각자의 삶 속에서 예술테가 하나 둘 늘어나게 하여 더 풍성해 지는 삶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국생활문화축제를 마무리 해 본다.

전야제 참관기

<예술이 나를 변화시키듯, 내가 예술을 변하게 하라>

- 조동희(뮤지션, 푸른 곰팡이 대표)

처음 '전국 생활문화축제' 공연과 활동을 제안 받았을 때 잠시 머뭇했다. 내가 과연 소셜 인플루언서로서 자격이 있는가...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내 몇 년 전 나의 상황이 떠올랐고 난 흔쾌히 수락했다.

2014년에 시작해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는 '전국생활문화축제'는 전국 각지의 문화,예술 방면 동호회들의 축제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그중 성남, 용인의 통기타 동호회와 기타,노래 콜라보를 하게 되었다.

지금은 프로뮤지션으로 활동하여 그들의 소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공연도 함께 했지만 스무살부터 음악을 해온 나도, 사실 아이들을 낳고는 거의 10년간은 음악활동을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다. 연년생에 쌍둥이를 혼자 키우며 음악이나 전공인 영화마저 점점 멀어져갔다. 너무나 다시 음악을 하고 싶어 아이들을 모두 재운 뒤, 다시 꺾까봐 노심초사 하며 노트북에 이어폰을 꽂아 음악을 듣고 글을 쓰고 틈틈이 영화도 봤다. 그렇게 다시 쓰기 시작한 글로 수십곡의 작사를 하였으며 그 시절에 만든 노래들을 데뷔앨범에 수록하기도 했다.

사람들이 말한다. 잠 좀 자라고. 사실 잠을 많이 줄이고 부지런해서서 가능하기도 했지만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꿈꿀 때 그것이 절실하다면 한걸음부터 시작하면 이미 반은 성공인 것 같다.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날짜를 써넣으면 성공확률이 2배로 높아진다고 한다.

공연 때 무대에서 이야기 했다. 예술 안의 나, 내 안의 예술.

예술이 나를 바꾸기도 하지만, 내가 예술을 바꿀 수도 있다고.

거리 곳곳에 그림으로 ,음악으로, 글씨로..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삶을 뽐어내고 있는 멋진 사람들을 만나고 나니 내 삶에 오히려 에너지가 생겼다. 그들이 내게는 인플루언서였다.

이 축제의 주인공은 가수도, 문화부장관도, 진흥원 원장님도, 가수도 아니었다.

그 무대는 평범한 삶 속에서 뜨거운 열정을 꽃피우고 있는, 한걸음 내딛은 그 멋진 도전자들의 것이었다.

공연을 통해 모두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를 외쳤던 그날.

- 김지현 (사단법인 서울튜티앙상블 대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는 말이 점점 옛 말이 되어간다는 생각을 <2017 전국 생활 문화 축제 ‘두근두근 내 안의 예술’>에 참여하며 또 한 번 하게 되었다.

초가을 햇살이 따사로운 마로니에 공원을 가득 채운 노래와 악기 소리가 내 안의 예술을 두근두근 깨어나게 했다.

전국에서 먼 길 마다않고 달려온 참가자들의 열정적인 모습과, 무대 위에서의 수줍으면서도 에너지 넘치는 공연을 통해 모두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를 외치고 있었다.

우선 공연마다 특색 있는 의상은 말 할 것도 없고 안무까지 전문 공연단체라고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였다. 특히 지역적 상황에 따라 여러 동호회의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이루어진 경우, 그 놀라움은 더 컸다.

한 동호회가 모여서 연습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여러 동호회가 짧은 기간 동안에 뜻을 맞추고 호흡을 맞춰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무대에 올렸다는 것으로 참가자들의 뜨거운 정열을 잘 알 수 있다.

빨간 스위스 전통의상을 예쁘게 차려입고 무대에 오른 인천 연수 알프스 요들 <마마파파>팀의 수준 높은 공연을 보며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언제나 젊고 즐거울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주니어 팀과 시니어 팀 40여명이 한 무대에 올라와 함께 연주한 부천 <좋은 소리 오카리나> 팀은 음악을 통한 세대 간의 소통이 들려주는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해 주었다. 매일 믿기지 않는 비보들이 넘치는 우리 사회에 반향을 일으킬만한 뜻 깊은 시간이었다.

대구에서 올라온 <소리모아> 플룻 앙상블은 아마추어의 수준을 넘는 완숙한 연주로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고 부지런히 무대에 서는지 짐작케 하는 동호회였다. 또 말솜씨 좋은 여성 참가자가 악기 설명까지 곁들여 더욱 흥미로운 감상이 되게 해주었다.

역시 스트레스 해소에 좋은 난타 동호회도 여럿이었는데 듣는 이의 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는 우렁찬 북소리가 마로니에 공원을 찌렁찌렁 울렸다. 이 밖에도 기타, 우쿨렐레 등 우리에게 친숙한 악기 합주는 콧노래를 흥얼거리게 해주었고,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화려한 반짝이 의상의 댄서로 변신하는 무용단의 순서는 한 순간도 눈을 땔 수 없었다.

리허설부터 모든 순서를 지켜보며 끊임없이 감탄한 점은 또 하나가 있다. 아무도 허둥대지 않았고, 여기에 주최자가 와있나 싶게 목에 힘을 준 사람은 눈에 띄지 않았다. 또, 마치 예행 연습을 여러 번 한 듯 전국에서 모인 생면부지의 참가자들이 물 흐르듯 당겨지지도 늦어지지도 않은 채 일정표대로 정확히 순서를 지켜 질서정연하게 무대에 오르고 있었다.

물론 진행 스태프가 여럿이었으나 이 행사를 위해 단기간 모인 일손들이기에 그들의 침착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며, 주최 측의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했으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참가자의 열정에 부응했는가를 짐작케 할 수 있었다.

생활이 문화이고, 인생이 예술이며 삶이 무대인 우리에게 한 바탕 놀이터가 되어준 <2017 전국 생활 문화축제>를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며 내년을 기대해 본다.

두근두근 내 안의 예술

- 유민희(작곡가, 전통예술원 강사)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활 속에서 예술을 즐기고 있는 줄 몰랐다. 아리랑이 삶의 노래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직접 여러 장르의 예술을 향유하는지 몰랐다. 어쩌면 수많은 민요의 가사가 삶의 노래라는 것을 머리로는 인지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공연장과 무대에서 연주하는 전문 예술가들은 멋진 공연으로 관객에게 감동을 주지만 내가 직접 참여 한다는 것은 보는 것과는 또 다른 가슴 뛰는 일이다.

9월9일 토요일 15:50분 충북지역의 콜라보무대 가온소리, 가이아 난타, 팔괘 가야금, 화락 무용단의 공연을 보며 출연자들의 열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구성진 성음의 강강술래, 가야금연주, 여성들로만 구성되었지만 에너지가 느껴졌던 난타그룹, 그리고 아름다운 무용을 한 무대에서 보여주기 위해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을지 모르지 않기에 더 그렇게 느꼈던 것 같다.

9월10일 오프닝 무대는 전북지역 올림타의 설장구 연주였다. 장구 동호회는 초등학교부터 70대 어르신들 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되어 전국에 많은 단체가 있는 것 같다. 리듬 악기의 장점은 선율악기가 가지고 있는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인 정확한 음정을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취미로도 부담없이 배울 수 있는 악기이다. 또 치고 때리는 가운데 쌓였던 스트레스가 발산 된다고 들었다. 올림타의 설장구도 상당한 수준이 느껴졌고 호흡도 좋았다. 아마 많이 배우고 연습하신 분들인 것 같았다.

전통예술 전공자의 시각으로 봤을 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전통예술 레퍼토리가 다양하게 알려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점이었다. 한국음악을 포함한 전통에 뿌리를 둔 예술 장르가 많은 사람에 의해 새롭게 창작되고 대중화 되고 있는 시대에 그 창작물들이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었다. 이 시대에 젊은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음악이 있고, 이 시대의 트렌드에 맞는 한국 음악이 있는데, 국악이란 인식은 너무나 전통에 머물러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말이다.

한국문화가, 한국음악이 무대에서 진화한 만큼 대중들에게도 전달되어 함께 향유할 때 문화의 발전을 실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 같고, 국악인들이 국악계에서 머물기만 할 것이 아니라 생활 속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예술은 무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오늘 내가 즐거워 할 수 있고, 오늘 슬픈 나를 위로해 줄 수 있고, 함께 울고 웃는 것 그것이 삶에 스며들어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면 그것이 바로 예술의 순기능이 아닐까? 생활 문화 축제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고 열정을 다하는 모습에서 함께 만들어 가는 모습에서 예술은 교과서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무대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서 살아 움직일 때 그 빛을 발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예술행위는 분명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과정과 결과

- 유춘오(국악잡지 라라편집장)

축제가 끝났다. 전야제를 시작으로 3일간의 설 틈 없는 일정이었다. 이제는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누비던 많은 사람의 흥겨운 모습으로 기억할 테지만 이런 일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다면 지난한 준비과정을 한 번쯤 떠올려봤을 것이다. 전국의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재단, 문화원, 문화의 집, 생활문화 동호회 네트워크 등 27개 기관 및 단체, 지역 협력 주체를 통해 121개 동호회가 참석했다. 공연 동호회가 가장 많은데 63곳에서 참여했고, 영상을 포함한 기획전시, 체험, 버스킹 등 떠올려 봄 직한 동호회는 사실상 거의 망라되었다. 이번 축제 총감독을 맡은 연극 연출가 남동훈 씨가 개인적으로 지난 두 달간의 전국 순회 일정을 들려줄 때 일그러진 호흡에서 눈치챈 건, 기획을 해보지 않은 이들은 쉽게 공감하기 힘든 고단함 같은 거였다.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최근 의미가 가장 많이 퇴색된 단어로 '공동체'와 '생태계'를 꼽고 싶다. 하도 여기저기서 주의, 주장의 건강함을 내세우기 위해 쓰고 있는 통에 조사처럼 상징이 사라졌다. '전국생활문화축제'라는 제목도 '두근두근 내 안의 예술'이란 캐치프레이즈를 통해 의도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모호한 첫인상이 더 강렬하다. 예술의 문턱을 낮춰 누구나 향유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예술 생태계를 구성하는 데 보탬이 되고 싶다는 식으로 언뜻 들린다. 요즘 유난히 생태계나 공동체를 강조하는 배경엔 먹고 사는 기본적인 생활이 어려워진 시대상이 깔려있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다든지 아니면 다양성이 보장되는 상황에서 예술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마련인 일반론에 비춰보면, 요즘 현실은 상대적이지만 여유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예술이 피어나기 정말 힘든 시대에 속한다. 특히 전통예술의 영역은 더더욱 불모지인데 이렇게 심하게 관제(官制)화된 현재 모습의 지난 시절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국풍 81'의 기억으로 이어진다. 결과에 과정은 무의미하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일대 사건으로 그 효과를 두고 논란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당시 여의도 광장을 가득 메운 축제 현장을 놓고서 과정은 어떻게 되었든 이런 기회를 빌려 전통예술 붐을 일으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고, 결국은 놀아날 뿐이라는 의견도 팽팽했다. 지금 돌이켜보면 전통예술이 관제화의 길로 들어선 분기점이 아니었나 싶다. 기반을 탄탄히 다지기는커녕 이리저리 치이고 밀려서 알맹이는 점점 쪼그라들었다.

자리를 제대로 잡는 일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부분 공감할 것이다. 그래서인지 관청에서 주관하는 대부분의 문화 예술 관련 기획은 대체로 규모만 클 뿐 지속 성장한 사례가

거의 없다.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게 58회를 맞는 한국민속예술축제다. 존재감이나 영향력이 갈수록 바닥을 치고 있다. 이렇게 환갑이 되도록 유지되는 경우는 그래도 나은 편이다. 대부분 굵고 짧게 사라졌다. 관련 공무원과 민간 담당자의 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텃밭의 차이를 간과했던 데서 원인을 찾는 게 전철을 밟지 않는 최선일지도 모르겠다. 굵이 회수를 건너면 탕자가 된다는 속담처럼 말이다.

어쩔건 수 없이 반복된 과정에서 고스란히 피해를 본 것은 참여했던 이들과 이들을 응원하며 지켜봤던 일반인들이다. 가슴 벅차던 캐치프레이즈도, 예술을 향한 뜨겁던 정열도 밋밋해져 버렸다. 그래서인지 이젠 웬만한 일엔 다들 이렇게 심드렁해지는 것 같다. 올해 네 번째를 맞은 전국생활문화축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일단 차갑게 시작된 게 그런 이유다.

사회 분위기가 지역 단위 문화생활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때마침 허브 역할을 하는 공간도 가파르게 늘었다. 도심 재개발, 행정 조직 재편과 맞물려 잠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용도를 잃어버린 어부지리일 뿐이긴 하지만 말이다. 이런 반사이익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필요는 없겠지만, 이렇듯 돌변하기 쉬운 정치 상황을 재료 삼은 기획을 바라보는 이들은 아무래도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심정일 게다.

날씨가 좋았던 어느 일요일에 마로니에 공원에서 하릴없이 지켜봤던 동호인들의 열의와 현장 활동가들의 절박한 모습이 내겐 얼마나 신선했는지 모른다. 작년보다 더 많은 단체가 참여하고, 서로 즉흥적으로 연대할 수 있도록 전야제를 융통성 있게 운영한 배려도 돋보였다. 게다가 주말에 온종일 열린 메인 이벤트조차도 거의 제시간에 별다른 잡음 없이 물 흐르듯 진행한 것은 타임라인을 초 단위로 쪼갤 만큼 충실하게 준비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실제 관찰은 결과뿐이지만 이렇듯 과정을 긍정적으로 추론할 수 있다는 게 다행이다 싶은데, 그래도 내년엔 과정을 뒤로 숨기지 말고 적극적으로 드러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당장은 더딘 듯 보이지만 그렇게 축적되어야 시간이 흐를수록 호응과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숫자로 매겨질 수밖에 없는 결과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과정이 전국생활문화축제가 나아가야 할 길에 더 가깝다.

참여 동호회 공연 리뷰

- 이동선(연출가, 몽씨어터 대표)

숲오카리나 앙상블(서울 구로구)의 시낭송 공연(9.9.(토) 13시)

<2017 전국생활문화축제>로 술렁이던 토요일 오후의 대학로. 그 시끌벅적함이 피곤해질 무렵 연극공연을 관람하기 위해 드림씨어터를 찾았다. 여기서 공연을 하는 게 만나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용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의 소극장. 공연 시작 전, 극장과 객석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전문공연장과 공연들에 길들여 있었던 걸까? 소극장의 열린 문과 그 문으로 극장 안팎을 편하게 오가며 공연을 준비하는 모습이 새삼 낯설고 신선하다.

천왕마을 오카리나 팀의 공연진행은 간결하고 솔직했다. 연주할 곡을 차분히 소개한 뒤에 오카리나를 연주하고 그 사이사이 시인이 자신이 좋아하는 시를 낭송하는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공연을 이어갔다. 그리고 무대 한 켠에 자리 잡은 기타가 오카리나 연주와 시낭송을 받쳐주었다.

초등학생부터 주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함께하는 천왕마을 오카리나 팀의 연주 역시 공연의 구성처럼 투박하고 간결했다. 일체의 허식이나 꾸밈없이 힘차게 불며 소리를 모으는 모습은 세련됨이나 기교가 주는 화려함과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듣는 이를 편안하게 감싸주었다. 관객은 그저 우리 이웃이 모아내는 숨소리와 바람소리를 느끼는 것이다. 투박하고 정직한 소리들을. 갈대밭을 쓸고 가는 바람소리를 닮은 오카리나 합주 소리를 듣는 것은 언제나 황홀한 일이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카리나의 연주가 단성부의 연주만이 아니라 간단한 화음을 이루는 연주곡을 한두 곡 더했으면 어땠을까하는 점이다. 천왕마을 오카리나 팀의 제일 어린 친구가 연주해서 많은 즐거움을 주었던 피리 독주처럼 음악적으로 관객들한테 좋은 서비스가 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평소 가깝게 지내는 듯한 시인 두 분의 시 낭송에서는 두 시인의 시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하지만 천왕마을 오카리나 팀의 투박하고 정직하며 공동체적인 연주와는 조금 이질적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목마와 숙녀> 같은 기존의 시를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천왕마을 오카리나 팀의 선곡과 좀 더 어울릴 수 있는 자작시를 낭송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본다. 아니면 마지막에 천왕마을 오카리나 팀의 대표분이 시를 낭송했던 것처럼 팀의 초등학생과 중학생, 혹은 다른 어머니들이 시를 골라서 낭송했다면 더 자연스럽게 어우러지지 않았을까.

가족과 이웃과 함께 소리를 만들며 호흡을 느끼는 천왕마을 오카리나 팀을 응원한다. 그리고 길들여지지 않고 잡히지 않는 바람처럼 자신들만의 소리를 긴 시간에 걸쳐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한다.

김해 생활문화연합회-김해촌님들의 <젊은 그대> 공연(9.9.(토) 14시)

김해 생활문화연합회 팀의 <젊은 그대>는 여러 면에서 흥미롭고 매력적인 공연이다. 우선 4-5개의 서로 다른 단체가 모여서 이 정도의 일체감과 구성적인 완성도를 보인다는 점이 놀랍다. 뮤지컬팀, 통기타 두 팀, 타악팀, 기획팀 등 전혀 다른 장르의 팀들이 모여서 각자 팀의 고유한 특성과 장점을 유지하면서 극에 자연스럽게 결합해 한 목소리를 이루는데 그 디테일이 놀랍다.

예를 들어, 극의 첫 시작에서 두 통기타 팀 중 한 팀은 복고풍의 학생복을 입고 이야기의 핵심인물인 어머니의 첫 사랑과 그 시절의 낭만적인 분위기를 기타 연주로 보여주며 극의 시작을 연다. 이후 통기타 팀을 이끌던 연주자가 어머니의 첫 사랑 역으로 종종 연기자로 등장하고 처음에 만든 낭만적인 분위기를 계속 이어가며 관객한테 의외의 재미를 선사한다.

두 번째 통기타 팀은 편안한 복장을 입고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과거를 회상하거나 독백, 혹은 걷기 중심의 간단한 안무를 할 때 무대 한 켠에 앉아 인물의 심리를 노래로 대변해준다. 동일한 장르의 두 통기타 팀이 각 팀의 개성을 정확히 살려서 각자의 역할을 하게하는 구성력과 정확한 표현력은 프로 공연인들도 쉽지 않다.

이 밖에 이야기를 따라가는 연극의 특성상, 연극에 결합이 쉽지 않은 타악 팀도 방송 속의 광고형식 등을 이용해서 재치있게 결합시킨 점 등 김해 생활문화연합회 팀의 공연에 대한 이해도와 서로에 대한 존중, 함께 하는 공동창작의 에너지와 단결력을 높이 평가하게 된다.

이야기로서 연극 <젊은 그대>는 이야기 그 자체도 무척이나 흥미롭고 요즘의 세태를 잘 반영한다. 나이가 들어서도 얹혀 사는 네 자매 때문에 속을 썩이던 홀어머니가 다시 만난 자신의 학창시절 첫 사랑을 당당히 선택한다는 결말은 요즘의 세태로 볼 때 유머러스하면서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시사적이다. 네 자매가 어머니한테 얹혀 사는 사연도 이혼, 육아 등등의 여성들이 부딪히는 현실적인 이유들로 설득력이 충분하다.

다섯이나 되는 서로 다른 팀의 고유의 개성과 장점을 잘 살리면서도 함께 모여 멋진 한 편의 이야기를 만들어낸 김해 생활문화연합회 <젊은 그대> 팀에 깊은 존경과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동작업을 통해 많은 교류를 하고 멋진 공연을 만들어 가시기를 기원한다.

서울 주부극단 <연>의 공연 ‘봉봉씨스터즈’ (9.10.(일) 13시)

노봉숙, 나봉숙, 오봉숙, 이른바 봉봉 씨스터즈가 고층의 화려한 한 아파트를 청소하다 해프닝에 휘말린다. 특하면 공상에 빠지는 청소아줌마들의 만연니 노봉숙을 아파트 집주인으로 착각한 관리원과 노봉숙이 그런 관리인의 말을 굳이 부정하지 않아서 생긴 웃픈 해프닝. 고층 아파트의 탁 트인 뷰티플한 전망을 바라보며 그런 곳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삼봉숙 아줌마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은밀한 소시민적인 욕망을 드러낸다. 종로 주부극단은 그 욕망을 봉봉 씨스터즈의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담아 풍자하고 위로한다.

종로 주부극단 <연>의 모든 연기자들은 모두가 넘치는 열정과 안정적인 연기력을 보여준다. 첫째 언니 노봉숙 역의 배우는 엉뚱한 꿈을 꾸는 노봉숙의 모습을 담기위해 다소 어색하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서도 말 그대로 몸을 끝까지 던져 결국 관객들한테서 웃음을 끌어낸다. 둘째 언니 나봉숙 역의 배우는 전체적으로 과장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연기로 극의 균형과 안정감을 준다. 셋째 막내 오봉숙도 어눌하면서도 귀여운 막내의 느낌을 애교스럽게 잘 살려준다. 이 밖에 관리원 역, 집주인 역의 연기자도 모두 분명하고 명확한 발성과 무대 움직임으로 종로 주부극단이 만만치 않은 내공의 팀임을 짐작하게 한다.

대본을 들고 움직이면서 생기는 약간의 어색한 순간과 무대약속의 어긋남이 있기는 했지만 그 정도 대사량, 그리고 완벽히 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멀티 역을 하고 극의 흐름을 끌고 갔다는 것은 대단한 집중력과 팀원들 사이의 신뢰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박수를 보낸다. 이후에 독회형식이 아니라 정식무대에서 본 공연이 올라간다고 하니 많은 점들이 보완되고 더 명확해질 것이 분명하다.

짐작컨대 주부극단<연>은 연기 자체에 대한 열정과 실력, 또 과거에 개인적인 무대경험이 남다른 팀으로 생각된다. 때문에 과제를 드리자면 연기에 대한 탐색을 좀 더 하시면 어떨까하는 점이다. 각 연기자들의 기량이 뛰어난 것에 비해 연기가 너무 정확하고 힘을 주어 연기한다. 너무 정확하게 하려는 연기는 역으로 연기를 단순화시키고 극을 지루하게 만든다. 두 시간 내내 주먹을 짝 움켜쥐는 것은 불가능하다. 감정을 조이면 푸는 시간이, 풀면 조이는 시간이 필요하다. 인물의 감정을 미리 정해 표현하기보다 따라가다가 연기자한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종로 주부극단<연>은 이번 연극제에 참여한 여타의 극단보다 배우라는 말이 어울리는 극단임에 틀림없다. 그래서일까? <연>이 좀 더 연기를 탐색해볼 것을 권하는지도 모르겠다. 사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데는 프로와 아마추어의 구별은 없다. 괴로움도 즐거움도 우리 감정의 일부이고 연기는 그 다채로운 감정을 경험하고 전달하는 수단이다. 종로 주부극단이 연기를 통해 더 다채로운 색채의 진실한 감성을 관객들한테 선물해 주시기를 믿고 바란다.

광주 청년 뮤지컬 극단 뮤지컬 <SOUL>의 뮤지컬 갈라쇼(9.10.(일) 16시)

광주의 뮤지컬 팀 <SOUL>은 이번 참가팀 중 20대 참가자가 중심이 된 가장 젊은 팀이다. 이에 걸맞게 무대 위의 활력과 에너지가 넘친다. 물론 안무, 연출적인 선들이 음악자체에 담겨있는 뮤지컬은 MR음악을 통해 분위기를 확 몰아주기 때문에 연극에 비해 배우들이나 관객의 에너지를 모아내기 쉬운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평균적인 여건을 뛰어넘기도 못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 또한 재미있는 점이다.

<SOUL>의 공연은 크게 세 파트로 구성되었다. 뮤지컬 <빨래>를 시작으로, 뮤지컬 <맘마미아>로 중간을, 마지막으로 뮤지컬 <렌트>로 마무리 한다. 안정적인 구성이다. <빨래>중 거리를 오가는 여러 사람을 스탱시키고 움직이게 하며 호기심을 끌어냈다면 <맘마미아>는 여 주인공의 아버지 후보 세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장면으로 웃음을 마지막 <렌트>는 소외된 도시 젊은이들의 거친 느낌과 소망을 담아 감동적인 엔딩노래로 마무리한다.

세 파트 모두 바로 <SOUL>팀 젊은 단원들의 감성과 잘 맞닿아있는 이야기로 보인다. 다만 두 번째 파트인 <맘마미아>는 재미있는 무대연출에도 불구하고 다른 두 파트에 비해서 몰입도가 조금 떨어진다. 어쩌면 <SOUL> 단원들이 아직 겪지 못한, 이제 곧 겪게 될 결혼과 출산, 부모가 되는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마이크 설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노래가사 전달이 잘 되었다는 점은 기술적인 면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노래는 단지 목청으로만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에 대한 이해, 노랫말에 대한 이해가 뒷받침되어야한다.

때문에 독창과 이중창, 삼중창 등에서 각 인물들의 노래가 잘 전달되었다는 것은 <SOUL>팀이 노래와 연기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에 <Seasons of Love>를 제외한 합창의 경우는 조금 아쉬웠다. 함께 부를 때 오히려 노래의 힘이 떨어지고 합창 속에서 얼버무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팀의 진정한 실력과 에너지는 합창을 통해 완성된다. <SOUL>팀이 개인의 실력에 의존하는 노래들 외에 함께 하는 합창 등에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 조심스럽게 조언해본다.

뮤지컬의 가장 큰 장점은 노래, 연기, 춤, 조명, 음향, 음악 등 무대예술의 전 요소들이 함께 모여 감동을 만들어내는 그 총체성에 있다. 쉽게 말하자면 함께 하는데 이만큼 좋은 예술장르도 없다는 말이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장르가 개방적이고 젊다는 말이다. 광주의 열정적인 젊은 극단 <SOUL>이 선택한 뮤지컬, 이 둘이 그토록 잘 어울리는 이유이다. <SOUL>은 원래 “울림과 소통”이라는 원래의 취지를 따라 힘차게 뛰고 노래하고 춤추면 그것으로 아름다운 팀이다. <SOUL>의 건투를 빈다.

젊음은 늘 옳다.

“온갖 꽃이 흐드러지게 활짝 피었던 전시 <백화만발 그림판>”

- 김미정(작가, 큐레이터)

대학로 이음센터 갤러리에서 9월 7일 ~ 8일 이틀간 진행되었던 <백화만발 그림판>은 전국의 시각예술 활동을 하는 동호회인들의 작품이 전시되었다. 총 5개 지역의 10팀의 동화회가 그리고 80여분의 동호회 분들이 참여하였다. 총 작품 수는 63여점 정도로 전시장이 다양한 분야의 작품들로 꽉 찼다.

많은 생활문화동호회 중에서도 시각예술동호회는 그 수가 상당하며, 오랜 역사를 지닌 팀들도 꽤 많아 작품의 퀄리티를 논하기에는 이미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서 있다. 회화, 공예, 사진, 조각 등 분야도 매우 다양하게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일상생활에서 본인의 직업을 가지면서 작품을 활동을 함께 한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이다. 모든 예술이 다 그렇겠지만 예술이라는 것이 정말 하고자 하는 그 마음과 열정이 없다면 불가능 한 것이라 생각된다.

평소에도 많은 전시를 찾아가고, 다양한 작품들을 보기는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일은 사실 드물다. 평소대로라면 그냥 쓱하고 지나쳤을지도 모르겠지만, 전시를 맡아서 진행하다보니 그 어느 때보다도 작품들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었다.

평면 회화 작품들은 유화, 수채화 등 그 재료가 매우 다양하고, 좋은 작품들이 많았으며 글과 그림이 함께 있는 캘리그래피는 또 다른 감동을 선사했다. 사진 작품의 경우 일반 풍경의 느낌보다는 마치 추상회화를 보는 듯한 느낌의 작품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나 공예분야는 그간 보지 못했던 다양한 방식의 작품들이 많았다. 드라이플라워, 자개공예, 조각보 작품들을 비롯하여 정말 장인이 한 땀 한 땀 엮어낸 듯한 전통매듭공예는 우리가 어떤 박물관에서 보고 스쳤을지 모르는 것이었지만 작품에 스며있는 열정과 시간이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그 자태는 곱고 단단했다.

또한, 신문지를 겹겹이 붙여 만든 의자와 테이블 공예작품들은 특히나 매우 인상적이었다. 작품은 각 개인의 것을 출품하기도 하고, 공동작품을 출품하기도 했다. 전문 예술가들은 공동작품을 제작하는 것이 사실상 쉬운일이 아니다. 각각의 고유성이 너무 짙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러나 서로가 활동에 큰 힘이 되면서 이끌어온 동호회는 공동작품이라는 하나의 결과물로 그 힘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았다. 각자 동호회 활동으로 작품을 하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다 같은 마음으로 느껴졌다.

언제부터인가 지역별로 생활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들이 늘어가고, 그들이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활동의 결과물들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장이 마련되고 있다. 그 필요성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평생학습의 중요성 혹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의 개념이 사회적으로 공감을 얻으면서 정책적으로 문화예술활동 동호회를 지원하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노력이 보편화되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기업에서도 기업인력 개발 및 조직문화 향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구성원의 자발성에 근거하여 조직된 문화예술 동호회 활동을 지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양상을 봤을 때, 이번에 진행된 전국생활문화축제 필요성 그리고 생활문화진흥원의 역할이 점점 중요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재주꾼들의 야무진 손끝 <요리조리 손끝판> 공예체험”

- 김미정(작가, 큐레이터)

9월 9일과 10일, 마로니에 공원에는 새하얀 그늘천이 쳐진 부스들이 옹기종기 모여있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공예체험 참여 동호회들이 자리하고 있었으며, 이미 체험을 시작한 동호회 혹은 시작 시간을 기다리며 무언가 열심히 준비하는 동호회 등 각각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이제 막 가을을 시작하려는 푸르른 하늘 아래, 개막공연까지 함께 더해지면서 마로니에 공원은 축제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개막공연 또한 동호회인들의 공연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수준급이었다.

<요리조리 손끝판> 이라는 이름에 맞게 손끝에서 탄생한 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고, 시민들은 부스를 자유롭게 오가며 다양한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부터 친구, 연인 등 다양한 시민들이 마로니에 공원을 오가고 있었는데, 특히 양쪽 체험부스 사이에는 마주침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 쉬기도 하면서 체험도 할 수 있도록 방문객들을 잠시나마 편하게 머무를 수 있게 하는 주최 측의 배려가 돋보였다.

각양각색의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는데, 부산, 연제, 김해, 완주, 군산, 삼천, 천안 총 7개 지역의 13개 팀이 조각, 자수, 사진, 전통매듭, 인형극 등 공예 및 체험이 가능한 다양한 분야를 선보이고 있었다. 기획전시에서도 볼 수 있었던 부산의 다올규방과 보자기 팀은 전통 손바느질 체험과 함께 리본, 비즈 등의 소재로 전시, 체험 등 학습을 통한 배움을 지역사회를 위해 나누고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고자 하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었다.

충남 천안의 두손가득팀은 목걸이 팬던트에 그림그리기 부스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팬던트에 그림을 그리면 부스를 운영하는 동호회인은 도자기용 물감으로 색칠을 해주는 방식으로 부스를 운영하였다. 자신만의 팬던트가 달린 목걸이를 만드는 아이들의 모습이 매우 즐거워보였다. 김해에서 참가한 폰카놀이터 팀은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찍은 사진 작품들을 함께 전시하면서 인화 체험 부스를 운영했다. 요즘은 스마트폰이 전문 카메라 못지않게 화질도 좋고, 다양한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서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한 사진을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이 폰카 촬영이라는 즐거운 취미를 갖길 바라는 마음도 함께 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천안의 선유정서회팀의 가훈쓰기 체험이었다. 어렸을 적 ‘가훈’쓰기를 숙제로 했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나면서, 요즘은 ‘가훈’이라는 것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서예라는 소재를 가지고 우리 집의 부모님이 혹은 선조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가훈이 있다면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가훈을 써보는 시간이 매우 유익하고 흥미롭게 느껴졌다.

또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함께한 <화제만발 문자판>은 생활문화 이슈에 관한 내용으로 이를 바라보는 시민의 의견을 묻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건프라 피규어를 전해 놓은 '재미나 공작소'와 '건담이 지키는 작업실' 두 팀이 참여를 해주었는데, 역시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과연 이것이 취미로만 보여져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었다.

인기가 많은 체험부스들은 예약인원이 모두 차기도 하고, 재료가 일찍 소진되는 일들도 있었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자 했던 서로의 마음이 잘 통했던 것 같았다. 방문객에게는 우리 주변, 우리 일상에 늘 함께 하고 있는 예술과 좀더 가까워 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길 바라며, 동호회인들에게는 이러한 생활문화축제를 통해서 자신들의 활동을 보여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마련되면서 보람과 함께 그 재능을 키워나갈 힘을 얻는 기회였기를 바란다.

“외로운 즐타기는 이제 그만! 작곡가가 본 생활 문화 축제”

- 이 나리메 (작곡가)

생활 문화 축제와 함께 하자는 연락을 이른 봄바람이 불 때 받았는데, 최근 저도 한 예술 동아리의 일원이 되어 전공과 취미생활을 동시에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터라 이 행사에 큰 관심이 생겨 덩석 함께 하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행사를 무사히 마치고 후기를 쓸 때가 되니 아침 저녁으로 다시 바람이 차가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연극 동호회의 공연에 음악을 맡은 것이 계기가 되어 여러 해 동안 공연을 함께 하다 보니 어느새 가족처럼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 때문 인지 생활 문화를 통해 이웃과 이웃이 만나는 소중함을 늘 감사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선배나 친구들과 모여 밴드도 하고, 합창도 가끔 하는데 매일 하는 일이 음악이지만 또 다른 장르의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생활에 힘과 자극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번 축제에 참여 하신 여러분들도 제가 느끼는 즐거움, 연대감, 무대에 서기전 떨리는 그 순간, 끝난 후의 허탈함까지 모두 느끼셨다고 감히 믿고 싶습니다.

그 동안의 준비 과정과 마지막 날 행사를 지켜보며 이 축제가 얼마나 정성스럽고 정교하게 준비 되었는지 온 몸으로 알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생활 문화 축제가 사운드 오브 뮤직이나 송포유 같은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경연 대회의 형식을 가져 오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 축제는 경연 보다는 다 함께 참여하고 즐기며 연대하는 보람을 찾는데 섬세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공연 순서, 공연의 구성, 전시 구성, 공간 배치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경연 형식을 탈피하면서도 다음 참여를 위한 동기부여를 참가팀들이 할 수 있도록 폐막식 참가팀을 선정 한 의도가 주의 깊게 살펴보니 드러났습니다. 경연의 형식은 열기를 쉽게 달굴 수 있지만, 당신들의 공연 외 에는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 팀들이 함께 축제를 즐기게 하기는 다소 어려운 형태입니다. 각 순서들이 또 하나의 큰 공연으로서 배려와 존중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극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정교한 연출이 있었다는 것을 축제와 공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것입니다.

음악 공연의 경우 음향 팀들이 각기 다른 소리 특성을 가진 공연들이 한꺼번에 묶여 있기 때문에 어느 공연보다 잔손이 많이 가고 세팅이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좋은 사운드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극장에서 했던 세트 없는 뮤지컬도 젊은 열정으로 공간이 꽉 찼는데, 영상이나 보다 좋은 음질의 반주음원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노래하는 사람이 아마추어인데 음역을 고려한 반주가 있었으면 더 즐거운 공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하드웨어 적인 부분 뿐 아니라, 음악적인 내용 면에서도, 각 커뮤니티에서 사용하는 양질의 반주음원 제작, 아마추어만을 위한 그 수준과 편성에 맞는 편곡 악보 제공, 지도교사 역량 강화, 다양한 레퍼토리 개발 등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참여하는 성원의 예술적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도 앞으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험이 축적된 장르도 있고, 각 장르마다 다 그동안 해 온 나름의 방식이 있겠지만, 최근 미디어의 빠른 확산으로 사람들이 기대하는 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술계에서 창작 활동을 하는 작업자들이 앞으로 이런 즐거움과 보람으로 삶의 집을 단장하는 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 해 새롭고 관계에서나 예술적인 목표로나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좋은 판을 깔아 드리는 것이 작업자들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나를 연단한다는 핑계로 무거운 어깨를 훈장삼아 외롭고 힘겹게 외줄타기를 하는 것처럼 작업을 하는 날들도 많은데, 노랫가락 한 곡 부르시며 까르르르 즐거워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조만간 신나고 따뜻한 음악을 쓸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작업자도 감동을 받는 생활문화 축제였습니다.

문화를 가깝게 즐기는 가장 빠른 방법은 스스로 하는 것

- 최윤우(서울문화재단 웹진 『연극in』 편집장)

지난 9월7일부터 9월10일까지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2017 전국생활문화축제’가 개최됐다.

전국의 생활문화동호회들이 직접 프로그램의 주체가 되고, 관객이 된다. 나흘간의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7만여 명의 관객이 찾아들었고, 이를 위해 전국에서 활동하는 1000여명의 생활문화동호인들이 모였다. 쉽게 셀 수 없을 만큼 준비된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이제 ‘문화’는 특정한 예술 창작자가 행위하고, 관객들이 그것을 보는 것으로 머물던 시대를 지났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를 하나의 공감대로 확장시키는 ‘생활문화축제’가 있다.

‘일상으로 침투하는 문화예술’이라는 슬로건이 우리 사회에 퍼져나간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벌어지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아닌, 삶의 곳곳에서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바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가장 빠른 방식이라는 것을 인식한 시간이 오래 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 현재, 스스로 주체가 되어 즐기는 시민문화 활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중앙정부는 물론 광역재단, 기초문화재단 등에서 이를 장려하고 지원하면서 긍정적인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무엇보다 스스로의 문화활동에 대한 자부심이 높아지고, 그것을 향유하는 방식이 확장되고, 스스로의 즐거움이 배가되면서 생겨난 자발적 네트워크가 이러한 흐름으로 선도하고 있다.

생활문화진흥원에서 주관한 ‘2014 전국생활문화축제’는 그런 의미에서 짚어볼 의미가 있겠다. 첫 번째는 장소성이다.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국내 문화예술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 대학로를 또 다른 흥미로움으로 들썩이게 했다.

170여개의 공연장이 모여 있는 대학로 자체가 지닌 문화예술적 특성과 함께, 극장 밖으로 나온 시민들의 문화활동은 묘한 동질감을 형성한다. 그것은 프로와 아마추어라는 쓸 데 없는 경계를 허물기에 충분하고, 문화가 어디서 어떻게 누군가와 만날 수 있는가를 모두에게 생각해 보게 하는 특별함을 던져주기 때문이다. 예년과 달리 대학로에서 진행된 이번 ‘전국생활문화축제’의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자발성과 협력이다. 이번 페스티벌에서 유독 눈에 띄는 것은 참여자, 즉 동호인들이 다른 프로그램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관점, 그것을 함께 즐기는 데서 오는 문화의 확장성이다. 행위자와 보는 이가 나뉘진 문화는 어딘가 모르게 자리하는 아스라한 경계선이 있다. 그러한 경계를 낮추기 위한 많은 시도들은 인위적인 방식으로 대처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스스로의 활동에 자부심을 갖는 만큼, 타인의 공연에도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고 있었다. 본인의 공연이 끝나면 자리를 떠나는 일반적인 행사와는 구별된 모습들 속에서 생활문화가 타인에 대한 존중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중요한 지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생활문화’는 어떤 것으로 수식할 필요나 이유가 없는 삶의 행동이다. 다만, 그것을 조금 더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팀이 구성되고, 거기에 특성을 부여하고, 하나의 방향을 정하는 지향점이 있는 것이다. 지금은 그러한 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조금 더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그런 지점에서 ‘전국생활문화축제’는 각각의 지역, 공간, 커뮤니티에서 하고 있는 활동들을 공유하고, 각자의 시선을 함께 고민하며, 그와 동시에 삶을 나눌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임에 틀림없다.

한 가지, 원론적인 부분에서의 기대는 이후의 방향성이다. 인간의 모든 행위 자체가 하나의 문화 활동으로서 인식되는 것, 즉, 생활문화라는 것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할 시기를 지나, 일상의 모든 행위 속에 자연스럽게 깃들여 있는 것이 문화이고 삶이 되는 것에 대한 기대다. 삶 속의 어떤 것이 문화 활동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필요가 없게 되는 시대가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생활문화라는 말 자체가 곧 삶이 되는 궁극적인 목표를 실현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이 바로 이번 ‘2017 전국생활문화축제’가 함의하고 있는 가장 큰 성과 중의 하나다.